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A Study on Woodblocks Engraved in Jeju Provincial Office
in the 17th Century

윤 봉 택(Yoon, Bong-Taek)*

노 기 춘(Roh, Ki-Chun)**

◁ 목 차 ▷

- | | |
|--------------------------------|--------------------------|
| 1. 緒 論 | 3.2 知瀛錄에 수록된 冊板 및 書板類 分析 |
| 2. 17세기 濟州牧에서 개간된 책판에 관한 史料 연구 | 3.3 기타 刊印本 分析 |
| 2.1 耽羅志의 書誌的 特徵과 板刻 과정 | 4. 17세기 濟州牧의 出版文化 특징 |
| 2.2 知瀛錄의 書誌的 特徵과 편찬 과정 | 4.1 官學과 私學 設立에 따른 出版文化 |
| 3. 耽羅志와 知瀛錄에 수록된 冊板 및 書板類 分析 | 4.2 醫書와 獸醫書, 兵書의 간인 |
| 3.1 耽羅志에 수록된 冊板 및 書板類 分析 | 5. 結 論 |
|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1653년에 간행된 私撰邑誌인 李元鎭의 耽羅志와 1696년 李益泰가 편찬한 知瀛錄을 통하여 1600년대 濟州牧에 소장하고 있는 책판을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 결과 李元鎭의 耽羅志에 수록된 책판은 41종, 李益泰의 知瀛錄에는 10종 등 총 51종의 책판이 1600년대 제주목에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책판의 주제별 분석 결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유생들의 교육에 필수적인 經部 서적의 책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밖에도 지방민과 牛馬의 질병 예방에 필요한 醫書와 獸醫書, 지역 방위에 필요한 兵書 등의 책판이 간인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목의 출판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要語 : 濟州牧, 耽羅志, 知瀛錄, 李元鎭, 李益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문화재 전임연구원(seogwipo@hanmail.net)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rohide@hanmail.net)

접수일: 2006년 8월 23일 최초심사일: 2006년 8월 25일 심사완료일: 2006년 9월 22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woodblocks, which were collected in Jeju provincial office in the 1600s by analyzing Tamraji(耽羅志) — a town chronicle compiled personally by Lee Won Jin(李元鎭) in 1653 and Jiyoungrok(知瀛錄) edited by Lee Ik Tae(李益泰) in 1696,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subjects, it is found that woodblocks for 51 titles were stored in Jeju provincial office in the 1600s, including woodblocks for 41 titles mentioned in Tamraji, and woodblocks for 10 titles recorded in Jiyoungrok. It is also found that most of those woodblocks were for the Confucian Classics, which were essential for the education of local students and scholars. Also, some woodblocks covers such subjects as veterinary medicines and medicines for protecting humans and animals from diseases, and military tactics for defending the local area, which shows the unique publication culture in the Jeju province that wa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Key words : Jeju provincial office, Tamraji(耽羅志), Jiyoungrok(知瀛錄),
Lee Won Jin(李元鎭), Lee Ik Tae(李益泰)

K C I

1. 緒 論

濟州島에서 처음 목판이 판각된 것은 高麗 忠烈王 22年(1296) 妙蓮社에서 重彫한 金光明經文句이다. 현재 이 妙蓮社本의 현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松廣寺¹⁾와 藏書閣²⁾에 소장된 자료 및 藤田亮策이 1938년에 발표한 논문³⁾을 통해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 卷下에 대한 형태적 특징과 판본 상태를 살펴 볼 수가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 제주목에서의 冊板 개간은 태종 18년(1418) 3월 權近의 禮記 淺見錄⁴⁾이 복각된 것을 시작으로 명종 10년(1555)4월에 제주목사 金秀文이 중간한 牧民心鑑⁵⁾이 개간되었고, 선조 7년(1574) 8월 7일에는 濟州牧에서 赤壁賦가 개간⁶⁾되었으며, 선조 18년(1585)에는 東國史略, 浣花流水⁷⁾등이 있었고, 인조 11년(1633) 1월에 제주목에서 新編集成馬醫方과 新編集成牛醫方⁸⁾이 개간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제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판각과 인출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이 조선조 이래 여러 차례 화마로 冊板庫 등이 소실되면서 冊板들이 일시에 전소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魚叔權이 1585년에 편찬한 攷事撮要의 八道程途에 수록된 濟州牧 소장의 책판과 1796년에 완성된 전국적인 책판목록인 鏤板考에 수록된 책판을 제외하고 1600년대 제주목에 어떤 책판이 존재하였는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 결과 2001년 南權熙 教授의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⁹⁾를 제외하고 1600년대 濟州에서 開刊된 冊板이나 刊印本에 대해서는

- 1) 韓國學文獻研究所編, 「曹溪山松廣寺史庫」, 권4 雜部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32張上. “金光明經文句疏卷下 元貞二年丙寅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彫.”
- 2) 朝鮮古蹟研究會編,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稿本」(?), 1938), 130.
- 3) 藤田亮策, “紙復古,” 「書物同好會會報」 第2號(昭和 十三年), 35-37.
- 4) 현재 高麗大學校圖書館에 所藏: 木板本(癸未字覆刻), 26卷 11冊
- 5) 金成俊, “牧民心鑑과 居官要覽의 比較研究,” 「東方學志」 제62호(1989. 6), 1-36.
- 6) 현재 藏書閣에 소장: 木板本, 1冊(46張).
- 7) 魚叔權(朝鮮) 編, 「攷事撮要」, 影印本(부산: 민족문화, 1995), 193.
- 8) 현재 高麗大學校圖書館에 所藏: 木版本, 1冊.
- 9)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第3輯(2001. 11), 219-251. 南權熙 教授는 이 연구에서 제주도에 관련된 기왕에 알려져 있던 기록과 발굴된 자료를 시대별,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되거나 보고된 바가 없고, 또한 현재 전하는 冊板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간인본도 매우 적어 사실상 연구자의 관심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¹⁰⁾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1653년에 간인된 李元鎭의 耽羅志와 1696년에 편찬된 李益泰의 知瀛錄은 1500년대 魚叔權의 旌事撮要가 편찬된 후 1700년대 鏤板考가 편찬될 때까지 1600년대 제주목의 책판 조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李元鎭의 耽羅志와 李益泰의 知瀛錄을 중심으로 첫째, 耽羅志와 知瀛錄 등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17세기 제주목에서 어떤 책판이 판각되었으며, 어떤 주제별 특징이 있는가를 분석해보며, 마지막으로 이들 주제별 분석을 통해 17세기 제주목의 출판문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2. 17세기 濟州牧에서 개간된 冊板에 관한 史料 研究

濟州島의 17세기 행정 구조는 濟州牧에 大靜縣, 旌義縣 등이 설치되어 三郡

주제별, 형태별로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한국 출판 문화사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전 계승되어 왔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南教授는 임란 후 1600년대 濟州에서의 書籍 刊行 기록에 관련해서는 현존 간행본과 관련 기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冊板目錄에 대해서는 1653년에 간행된 耽羅志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耽羅志에 수록된 책판들이 1677년 濟州鄉校의 실화로 인하여 모든 책판이 소실이 된 후 濟州牧使 李益泰가 1696년에 필사한 知瀛錄에 수록된 책판을 추가하여 1600년대 제주도의 출판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10) 다만 문화재청의 ‘한국전적종합조사’ 계획에 따라 1983년 8월 1일부터 동년 9월 10까지 문화재관리국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濟州道 典籍類綜合調查報告>를 시작으로, 1996년 문화재관리국의 제주도내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에 대해 종합 조사가 이루어져 총 391종 1,204책이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9輯 - 충청북도 · 제주도(서울: 成成文化社, 1996), 231-254] 이 가운데 제주도에서 판각된 冊板으로 찍어낸 간인본은 濟州府舍辭要覽(1896년), 耽羅志(1653년), 婚禮笏記(1856년) 등 3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소장된 전적을 조사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체제로 유지되었으며, 행정은 중앙에서 임명하는 牧使에 의하여 관리되었고, 임명 당시 도세에 따라 문관 또는 무관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임명된 목민관들이 제주목과 大靜縣, 旌義縣을 巡歷하면서 각종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 17세기 冊板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가 1653년 개간된 李元鎭의 耽羅志와 1696년 편찬된 李益泰의 知瀛錄, 그리고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사료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耽羅志와 知瀛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1 「耽羅志」의 書誌的 特徵과 板刻 과정

耽羅志는 李元鎭이 1653년에 편찬한 木板本, 1冊(81張)의 地理志로 耽羅志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耽羅志/. [李元鎭 編]. - 木板本. - 癸巳(1653), 1冊(81張), 22.5×34.7 cm.
四周雙邊, 半郭: 16.9×25.7cm, 有界, 8行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跋: 癸巳(1653)季秋上澣平城後人申纘謹跋.

耽羅志의 編者인 李元鎭(1594~1665)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본은 驪州, 字는 昇卿, 號는 太湖·漁隱이다. 광해군 4년(1612)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광해군 7년(1615) 인목대비의 폐모론과 관련하여 귀양 갔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났다. 인조 11년(1633) 홍문관 수찬, 인조 13년(1635) 순천부사, 인조 22년(1644) 동래부사, 효종 원년(1649) 강원감사, 그리고 효종 2년(1651) 6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653년 10월에 이임하였다. 특히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효종 4(1653) 8월 16일에는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하기도 하였으며, 재임 시에는 선정을 베풀었다.

耽羅志는 李元鎭이 이임하던 1653년 간인하였는바, 耽羅志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濟州鄉校 教授였던 申纘이 쓴 跋文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 지금 李太湖 漁隱공이 제주목에 부임한 이래 民風을 상고하고 俗情을 살핀 다음 圖籍의 황당무계함을 개탄하고 고을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근심하였다. 이에 東國輿地勝覽을 참고하여 고을의 자취를 살피고 또한 본 기록에 누락된 것을 모아 한편의 책으로 엮어 내었다. 그러면서 冲庵의 風土錄에서는 중요한 것을 취하였다. 使客의 樓觀에 대한 題詠은 그 화려한 것은 수집하되, 번잡한 것은 추스리고 간명한 것은 헤아려 이것을 길이 전하고자 匠人들을 모아 판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土人 高弘盡에게 명하여 감독과 교정을 맞게 하였다. 그 후 한달이 지나서 목판이 완성되었다. 목판이 완성되자 初印한 후 冊板은 校宮에 비치하여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이후로부터 이 고을의 일을 알고자한다면 이 耽羅志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고금의 사실을 널리 수집하여 가려낸 후 미미한 것 까지 살폈으니, 이 고을의 인물과 旌義縣·大靜縣의 산천을 비롯하여 명승까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癸巳(1653) 9월 상순에 平城 後人 申纘¹¹⁾이 삼가 跋을 쓰다.¹²⁾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耽羅志는 李元鎮이 1651년 6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주목을 순력하고 난 후, 조선 전기의 전국 지리지인 『東國輿地勝覽』과 조선 중기의 문신 金淨(1486~1521)이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보고 겪은 독특한 풍물을 기록한 『濟州風土錄』을 참고로 하여 재임 26개월여 동안 자료를 정리하여 완성한 것이다. 그 후 도내 장인을 모아 冊板을 판각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감독 및 교정은 高弘進¹³⁾이 담당하였다. 목판의 판각은 한달 여 만에 완성이

11) 申纘 (1613~?)의 본관은 平山, 字는 子述, 孝宗 2년(1651)에 式年試에 丙科2로 합격하였으며 察訪을 지냈다.
 12) 李元鎮 跋; 김찬흠 등역, 『역주탐라지』, 附錄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161-168. “... 今者李太湖漁隱公刺州以來考民風察俗情慨圖籍之無稽愍鄉氓之嘗識於是取輿地勝覽究其往蹟又采本記之闕遺者述爲一編之書而冲庵風土之錄撮其要者使客樓觀之詠揆其華者刪煩就簡謀壽其傳鳩工鋟梓而受命土高弘進監校其役閱旬月而告訖頒印之後置板於學宮以爲鄉人之傳覽自茲以後欲知是州之事者觀此志足矣蒐羅今古剔抉眇微一州人物之衆二縣山川之勝無不備述... 癸巳季秋上澣平城後人申纘謹跋.”
 13) 高弘進은 제주 출신으로, 宣祖 35년(1602)에 태어났다. 본관은 濟州, 字는 退而 顯宗 7년(1666)에 丙科에 급제한 후 濟州牧의 教授와 成均館 典籍을 지냈다

되었고, 初印本을 인출한 후 冊板을 濟州鄕校 내에 보관케 하여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게 하였다.

그러나 濟州鄕校에 소장하고 있던 耽羅志 冊板은 숙종 3년(1677) 실화로 인하여 모든 책판이 소실이 되었다고¹⁴⁾한다. 그렇지만 1796년 徐有築 등이 완성한 『鏤板考』에 일부 冊板이 소장되어 있고,¹⁵⁾ 1843년 李源祚가 저술한 『耽羅志草本』¹⁶⁾에도 일부 冊板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볼 때, 19세기까지도 耽羅志의 일부 冊板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冊板의 유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간인본은 현재 국내 여러 도서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2002년 7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던 耽羅志를 제주사료탐독회¹⁷⁾의 주관으로 譯註하고, 원문은 영인하여 부록으로 첨부, 발간하였다.

2.2 「知瀛錄」의 書誌的 特徵과 편찬 과정

知瀛錄¹⁸⁾은 李益泰가 1696년에 저술한 筆寫本, 1 책(111張)으로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知瀛錄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知瀛錄 / 李益泰 編著. - 筆寫本. - 丙子(1696년), 1冊(111張), 17.6×26.4 cm
 序 : 丙子(1696년)暮春 行節制使延安後人書于臥仙閣.

知瀛錄은 黃紙紅絲의 線裝本 형태이며, 表題는 知瀛錄, 크기는 17.6×26.4 cm,

14) 李增, 「南槎日錄」. 公廨條 “冊板庫丁已失火諸冊板 ■ 燒云.”

15) 徐有矩·李鍾萬 篇; 洪命喜 校訂, 『鏤板考』, 卷第三, 史部 掌故類條 影印本 (서울: 대동출판사, 1941), 18-19. “耽羅志 一卷”; “濟州牧藏印紙二牒一片”.

16) 李源祚, 『耽羅志草本』, 卷二(影印本)倉庫條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140. “冊板庫… 耽羅誌… 諸板太半朽剝又多闕失可印者少.”

17) 李元鎮 編; 김찬흡 등역, 『역주탐라지』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18) 이익태는 知瀛錄을 모두 2부를 필사하여 1부는 제주목에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이임하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知瀛錄은 후자의 것으로 판단되며, 그의 9代孫(完熙)이 보존하여 오다가 2002년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張數는 111張이다. 첫 장은 丙子(1696)年 李益泰가 臥仙閣에서 쓴 知瀛錄 序文 이 있고, 이어 卷首題인 知瀛錄 아래 ‘甲戌五月余在韓山 …’으로 시작되는 일기 체 형식의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이 끝난 다음 부록 형식으로 漂流關聯記錄 이 수록 되어 있다.

知瀛錄의 편저자인 李益泰(1633~1704)는 문신으로서, 본은 延安, 자는 大裕, 호는 洽溪이다. 현종 원년(1660) 司馬試의 초시·복시에 합격하였으며, 현종 11년(1670) 吏曹佐郎, 현종 12년(1671)에 외직인 함경도 高山察訪에 임명되었다. 숙종 7년(1681)에 공주목사, 숙종 13년(1687)에 서산군수, 숙종 20년(1694) 同副承旨, 같은 해 5월 26일에 제주목사로 임명되어 숙종 22년(1696) 2월에 遞去 되고, 1703년 병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2년간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한라산에 두 번 등정할 만큼 巡歷을 하였다. 관덕정과 운주당 등을 중창하였고, 耽羅十景을 선정하여 畫屏으로 耽羅十景圖를 남겼다.

知瀛錄은 이익태가 1694년 5월 26일 제주목사에 제수를 받고 난 후 숙종 22년(1696) 2월에 遞去될 때까지 2년 동안 기록한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沖庵의 風土記, 淸陰¹⁹⁾의 南槎錄, 林梯의 南溟小乘, 이원진의 耽羅志 를 살펴보면서 재임기간 동안 기록하여 놓은 일기에 臚錄을 침삭하고 자신의 의견을 붙여 편집하고 書名을 知瀛錄이라 하였다.²⁰⁾

李益泰는 제주도에 관하여서는 자신의 견해를 크게 10가지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는데 知瀛錄의 ‘增減十事’條가 바로 그것이다. 李益泰는 ‘增減十事’의 여덟 번째 항목에서 당시 濟州牧에서의 冊板 구성과 보존, 인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본주에 있는 冊板은 일찍이 화마로 인하여 소실되어 남은 것이 없다. 그 후에

19) 淸陰은 인조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淸西派의 영수이며, 병자호란 때는 끝까지 主戰論을 주장한 金尙憲(1570~1652)의 號이다.

20) 李益泰 著; 金益洙 譯, 『知瀛錄』, 附錄(제주: 제주문화원, 1997), 3-4. ‘知瀛錄序 … 金沖庵之風土記金淸陰之南槎錄林白湖之南溟小乘李漁隱之耽羅志各因其所耳目屢書重出而詳略 … 以日記參酌臚錄間附己意名曰知瀛錄 ….’

四書諺解, 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등의 冊板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冊板을 보관할 藏閣이 없어서 제주 향교 내에 있는 東齋에 보관하고 있다. 봄 가을 재를 모실 때, 여러 유생들이 齋에 머무르면 그 유생들로 하여금 冊板을 마당으로 꺼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구차하기 때문에 入番하는 下人으로서 하여금 番을 면제하는 대신 藏閣의 재목을 구해 오도록 했다. 그래서 大木은 5~6명, 中木은 3~4명, 小木은 매 사람마다 나누어 모은 것을 가지고 冊板을 보관할 5칸의 藏閣을 지어 그곳에 보관하도록 했다. 그리고 책을 印出할 때에는 齋任이 冊板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교생들이 각각 冊板 제작에 필요한 板材를 하나씩 준비해와 小學, 諺解喪禮備要 등의 冊板을 만들고 싶었다. 이에 營牧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刻手 70여명을 뽑아 각각 당번을 세워 板木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서 板刻을 잘하는 善手 10여명에 게는 별도로 금료를 주고, 校正토록 하였는데, 3개월 후 板刻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또한 宣廟御筆인 大字草書 八帖을 板刻하였다 그리고 새로 板刻 한 小學 및 喪禮는 3帙을 찍어 내어 제본한 후, 濟州牧, 旌義縣, 大靜縣에 있는 鄉校에 나누어 줬다.²¹⁾

이상과 같이 17세기 후반 제주지역은 1677년 화재로 인하여 남아 있는 책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四書諺解, 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小學, 諺解喪禮備要, 宣廟御筆인 大字草書 八帖 등의 冊板 및 書板을 판각하여 새로 지은 5칸의 藏閣에 보관하였다. 특히 小學, 諺解喪禮備要 등의 판각에 필요한 冊板은 직접 수혜자인 향교의 校生들에 의하여 板材가 공급이 되었고, 板刻은

21) 李益泰 著; 金益洙 譯, 「知瀛錄, 附錄(影印本) 增減十事條(제주: 제주문화원, 1997), 121-122. “本州冊板曾因回祿之災蕩然無餘其後所備四書俱諺解疑禮問解剪燈新話史略等板而無藏閣權置於鄉校東齋春秋釋采諸生齋宿時出板外庭罷齋後還入置非但苟艱多有風雨致傷之弊故令入番下人除番鳩村而大木則五六名中木則三四名小木則每名分 之收聚造成五間屋於校中以爲藏置冊板而印出時則齋任主管開閉且校生輩各備板材一立欲刊小學及諺解喪禮備要等冊者抄女云出故營牧下人中可合刻手者七十餘名各其當番使之刻役又擇其善手數十名給料校正三閱月而畢功又得宣廟御筆大字草書八帖入梓而新刊小學及喪禮印出三件粧冊分上三邑鄉校”.

당시 제주목에 거주하고 있는 刻手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刻手 중에서 새김이 뛰어난 善手들을 별도 선발하여 일정의 급료를 지불하였고 직접 校正을 하도록 하였다. 인출은 齋任의 책임 하에 인출하였으며, 새로 판각한 小學 및 諺解喪禮備要는 각각 3질을 인출하여 제본한 후 濟州牧 과 旌義縣, 그리고 大靜縣에 있는 鄉校에 나누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耽羅志」와 「知瀛錄」에 수록된 冊板 및 書板類 分析

앞장에서 耽羅志의 서지적 특징과 판각 과정, 知瀛錄의 서지적 특징과 편찬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耽羅志의 冊板庫와 知瀛錄에 수록되어 있는 冊板 및 書板類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耽羅志에 수록된 冊板 및 書板類 分析

耽羅志의 濟州牧 倉庫 條에는 司倉, 東別倉, 西別倉, 常平倉, 歸厚倉, 紫電庫, 淸霜庫, 息波庫, 朝天庫, 別防庫, 涯月庫, 明月庫, 火藥庫, 戶籍庫, 州司, 營繕, 氷庫, 冊板庫, 旗幟庫, 獄 등 총 20개의 倉庫가 있고, 이 倉庫 條에 冊板庫가 있다.

당시 제주목 내의 濟州鄉校에 존재하였던 冊板庫에는 書傳大文, 詩傳大文,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孝經, 中庸諺解, 大學諺解, 小學諺解, 十九史略, 唐詩絕句, 三韻通考, 將鑑博議, 玉壺水, 牧民心鑑, 兵學指南, 剪燈新話, 千字, 圃隱集, 冲庵集, 東溟集, 續青丘風雅抄, 家禮, 童子習, 童蒙先習, 類合, 正俗, 擊蒙要訣, 救急方, 經驗方, 馬牛方, 耽羅志 등 34종의 冊板 과 春種, 赤壁賦, 藤王閣序, 浣花流水, 草千字, 退溪書, 聽蟬書 등 7종의 書板²²⁾ 총 41종의 冊板 및

22) 李元鎮 編; 김찬흠 등역, 「역주담라지」, 附錄(影印本) 倉庫條(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73. “冊板庫 在鄉校 書傳大文 詩傳大文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孝經 中庸諺解 大學諺解 小學諺解 十九史略 唐詩絕句 三韻通考 將鑑博議 玉壺水 牧民心鑑 兵學指南 剪燈新話 千字 圃隱集 冲庵集 東溟集 續青丘風雅抄 家禮, 童子習 童蒙先習 類合 正俗

서관을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들 책판들이 언제, 어디서 판각되어 濟州牧의 冊板庫에 소장되었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주도는 기후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이열대 수종인 후박나무, 담팔수나무, 녹나무 등 목재나 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이 형성되어 대형 선박이나, 사찰 건립에 필요한 목재들이 강제로 몽고나 고려로 보내졌고, 이러한 목재들은 大藏經 제조²³⁾ 등에도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지금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에는 후박나무, 녹나무, 각종 난대림지대 등이 해안 가까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목에 거주하고 있는 刻手들이 제주에 산재하고 있는 풍부한 목재들을 이용하여 임진왜란 전후에 판각된 冊板과 書板들을 제주목의 冊板庫에 소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653년 당시 제주목에 소장되어 있는 冊板들의 주제별 특성을 밝혀보기 위하여 동양의 전통분류법인 四分法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 經部는 書類 1종, 詩類 1종, 禮類 1종, 孝經類 1종, 論語·孟子·大學·中庸을 다룬 四書類가 6종, 초학자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字書와 韻書, 蒙求書 등을 다루고 있는 小學類는 4종 등 총 15종, 史部는 개인이 저술한 歷史書를 다룬 別史類 1종 官制·官箴을 다룬 職官類 1종, 總誌·道誌·邑誌 등을 다룬 地理類 1종 등 총 3종, 子部는 儒學에 관련한 유학자들의 저술을 분류한 儒家類가 4종, 兵書를 다룬 兵家類 2종, 醫學 및 獸醫學에 관계된 서적을 다룬 醫家類 3종, 각종 예술서적을 분류한 藝術類 7종 등 총 16종, 集部는 詩文評類 2종, 別集類 3종, 小說類 2종 등 총 7종으로 분석되었다(표 1 참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1650년대 제주목에는 지방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經書와 유학관련 책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밖에도 질병예방을 위한 醫書와 동물의 치료와 축산을 위한 獸醫書, 그리고 지역 방위를 위한 兵書 등 다양한 주제의 冊板과 書板들을 소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擊蒙要訣 救急方 經驗方 馬牛方 耽羅志 書板 春種 赤壁賦 藤王閣序 浣花流水 草千字退溪書 聽蟬書.”

23)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민음사, 2004), 149.

3.2 知瀛錄에 수록된 冊板 및 書板類 分析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知瀛錄의 增減十事條에 수록된 내용을 볼 때, 1696년 당시 제주목에 소장되어 있었던 冊板은 史略, 四書諺解(論語諺解, 孟子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小學, 諺解喪禮備要, 疑禮問解, 剪燈新話 등 9종과 書板은 宣廟御筆인 大字草書 1종 등 총 10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10종의 책판들은 1650년대 濟州牧의 冊板庫에 소장된 책판들이 1677년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된 후 李益泰가 濟州牧使로 부임한 1694년 이후에 모두 판각되었음을 된 것들이다.

이들 冊板들의 주제별 특성을 밝혀보기 위하여 四分法으로 분류하여 보면, 經部는 禮類 2종과 四書類 4종 등 6종, 史部는 別史類 1종, 子部는 儒家類 1종과 藝術類 1종 등 2종, 集部는 小說類 1종으로 조사되었는 바, 주로 經部 서적의 冊板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1 참고).

이러한 이유는 위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1677년 화재로 인하여 제주목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들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에, 지방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經書를 집중적으로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3.3 기타 刊印本 分析

1653년 이원진에 의해 간행된 耽羅志의 冊板庫와 1696년 이익태가 편찬한 知瀛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17세기 제주목에서 간인된 판본 가운데 국내에 현존하는 전적은 新編集成馬醫方이 있다.

新編集成馬醫方은 趙浚 등이 元朝의 馬方을 바탕으로 하여 東人이 경험한 기술을 취해 편찬한 우리나라 獸醫·畜産學書의 대표적인 책으로 初刊本은 정종 원년(1399) 江原道에서 목판본으로 간인하였으나 일실되었고, 이어 中宗때 갑진자로 중간되었으며, 선조 13년(1580)과 광해군 8년(1616), 그리고 인조 11년(1633)에 각각 木板本으로 復刊되었다.²⁴⁾

이들 목판본 가운데 濟州牧 간인본은 馬醫方(93枚)과 牛醫方(20枚)을 1책으로 合冊하여 ‘新編集成馬醫方’이라는 書名으로 인조 11년(1633)에 복간한 판본으로서 “建文元年蒼龍己卯(1399)仲呂既望 … 房士良序”와 같이 典醫少監인 房士良의 序文과 末尾에 “崇禎六年(1633)正月日濟州開刊”의 刊記가 수록되어 있다.²⁵⁾ 그런데 1653년 이원진의 耽羅志의 冊板庫에 ‘馬牛方이 실려 있는데, 新編集成馬醫方의 간행년도와 耽羅志의 간행년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馬醫方과 牛醫方을 1책으로 合冊하여 만든 ‘新編集成馬醫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는 제주 감영에서 1642년에 간행한 嶺海唱酬錄 1책과 1680년에 간행한 謹齋先生集 零本 1책이 소장되어 있다. 嶺海唱酬錄은 朴星錫(1650-1709)이 제주목사가 되었을 때 간직하고 있던 5대조 朴忠元(1507-1581)과 趙士秀(1502-1558)가 화답한 시문을 제주감영에서 간행한 것으로 “崇禎紀元後壬午正月日 濟州營開刊”이라고 하여 崇禎 紀元後 壬午인 1642년 제주 감영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러나 南九萬(1629~1711)이 辛巳年(1701)에 쓴 서문과 朴星錫의 생몰년인 1650~1709년을 고려해 볼 때, 刊記는 “崇禎紀元後再壬午(1702)”의 誤記로 보이며, 따라서 이 문집은 숙종 27년(1701)에 편찬되고 이듬해인 숙종 28년(1702)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謹齋先生集은 高麗末의 문신인 安軸(1282~1347?)과 그의 아들 宗源(1325~1394), 宗源의 孫 純(1371~1440), 그리고 純의 아들 崇善(1392~1451) 등 先祖 四代의 유고 및 傳, 碑碣文 등을 합쳐 후손인 安慶運이 펴낸 책으로, 跋文은 “崇禎紀元後庚申(1680) … 慶運,” 刊記는 “庚申(1680)冬刊于濟州移藏板本於羅州”라고 하여 庚申年을 모두 1680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순흥안씨삼과중회에 의하면 安慶運은 安軸(6世)의 14대 후손으로 字는 善餘, 號는 感齋이며, 1683년 癸亥에 태어나 1749년 己巳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다.²⁷⁾ 그러므로

24) 李盛雨, 『韓國食經大全』 (서울: 鄉文社, 1981), 240-241.

25) 현재 이 책은 高麗大學校圖書館 등에 소장되어 있다.

26)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嶺海唱酬錄』, 1冊(63張), 木版本. 序: 歲在辛巳(1701) … 南九萬; 刊記: 崇禎紀元後壬午(1642) 正月日 濟州營開刊

安慶運의 생몰년을 고려해 볼 때, 謹齋先生集에 쓰여진 庚申은 1680년이 아닌 1740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謹齋先生集은 1740년 庚申에 제주에서 간인하여 장판과 인본을 모두 전라도 나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이상 耽羅志와 知瀛錄에 수록된 책판을 四分法으로 종합 정리해 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17세기 제주목의 冊板 및 書板類 分析

분류	관류	耽羅志		知瀛錄		계
		冊板	書板	冊板	書板	
經部	書類	書傳大文				1
	詩類	詩傳大文				1
	禮類	家禮		疑禮問解 諺解喪禮備要		3
	孝經類	孝經				1
	四書類	論語,大學,大學諺解 孟子,中庸,中庸諺解		論語諺解,大學諺解,孟子諺解,中庸諺解		10
	小學類	童蒙先習 童子習 三韻通考,類合,千字				5
	계	15		6		21
史部	別史類	十九史略		史略		2
	職官類	牧民心鑑				1
	地理類	耽羅志				1
	계	3		1		4
子部	儒家類	擊蒙要訣,小學,小學諺解正俗		小學		5
	兵家類	將鑑博議,兵學指南				2
	醫家類	經驗方 救急方 馬牛方 新編集成 馬醫方 新編集成 牛醫方)				3
	藝術類		藤王閣序 浣花流水,赤壁賦,聽蟬書,草千字,春種 退溪書		大字草書	8
	계	9	7	1	1	18
集部	詩文評類	唐詩絕句,續青丘風雅抄				2
	別集類	圃隱集,沖庵集,東溟集				3
	小說類	玉壺水,剪燈新話		剪燈新話		3
	계	7		1		8
총계	34	7	9	1	51	

27) <http://www.shahn3.com/3/17.pdf>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탐라지에 수록된 책판과 서판은 41종, 지영록에 수록된 책판과 서판은 10종 등 17세기 제주목에 소장하고 책판과 서판은 총 51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51종을 四分法으로 분류해 본 결과, 經部 21종, 史部 4종, 子部 18종, 集部 8종으로 經部 書籍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17세기 濟州牧의 出版文化 특징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출판정책은 중앙의 校書館과 鑄字所에서는 국가의 典章, 史書 및 王家의 기록 등과 같은 중요한 官撰書들의 서적간행 사업을 전담하였으며, 그밖에 중앙의 특수기관, 예컨대 내의원에서는 東醫寶鑑 등의 의학서를, 正音廳에서는 諺文 관계서적을, 관상감에서는 曆書에 관련된 서적을 간행하였다. 한편 지방출판은 크게 府, 監, 營 중심의 官板本과 각 書院에서 간행된 書院板, 각 寺刹에서 開板印出된 寺刹板 개인적으로 간행 비용을 마련하여 간행한 私家板, 그리고 17세기 이후 상업적 출판을 위해 간행된 坊刻本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서적 출판은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李元鎭의 耽羅志와 李益泰의 知瀛錄을 포함하여 기타 사료의 기록을 중심으로 17세기 濟州牧의 出版文化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1 官學과 私學 設立에 따른 出版文化

조선시대에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자제들과 목민의 교육에 관심이 매우 많았다. 이로 인하여 지방 자제들이 간혹 과거에 급제하게 되자 무예보다는 경서를 보아 과거에 급제하기를 원하는 자제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감영에서는 學舍가 없고 判각으로 인출된 서책이 없어 자제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자, 해당 지역의 승려들을 징발하여 학사와 判각에 필요한

자제를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경서를 간행하도록 하여 많은 지방 관관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²⁸⁾ 제주도 역시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태조 3년(1394)에는 제주목에 敎授官을 두어 土官의 子弟를 교육시켜 上京 侍衛하게 하고 千戶 등의 관직을 주도록 했으며,²⁹⁾ 태조 3년(1394) 濟州鄉校 설립을 시작으로 세종 2년(1420)에 旌義鄉校와 大靜鄉校가 각각 세워졌다. 書院은 선조 11년(1578) 沖庵 金淨을 추모하기 위하여 橘林書院이 설립되었고, 중종 29년(1534) 서당으로서 처음으로 鄉學堂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인종 원년(1545) 金寧精舍와 月溪精舍, 영조 12년(1736) 三泉書堂 등이 차례로 설립되면서 지방 자제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 자제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가 제주목에서 자체적으로 판각되는데, 태종 18년(1418) 3월에는 權近의 禮記 解說書인 禮記淺見錄이 복각되었고, 명종 10년(1555) 4월에 제주목사 金秀文이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牧民書인 牧民心鑑을 중간하였다. 선조 7년(1574) 8월 7일에는 中國 北宋末의 문인 蘇東坡의 赤壁賦가 개간되었으며, 선조 18년(1585)에는 역사서인 東國史略 등이 간인되었다.

한편, 1600년대에 들어와 제주목의 서적 간행 사실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앞장에서 1653년에 간인된 李元鎭의 耽羅志 冊板庫와 1696년 李益泰가 편찬한 知瀛錄에 수록된 冊板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조의 건국이념인 崇儒右文政策을 실현하기 위하여 論語(諺解), 孟子(諺解), 大學(諺解), 中庸(諺解) 등의 四書類와 일상생활의 예절에 관한 家禮, 諺解喪禮

28) 「朝鮮王朝實錄」世宗 10年 5月 6日 丁巳(條). “咸吉道監司崔鑄啓本道地極北鄙前此不設學校識字者蓋寡今文明之化廣被大小州縣各置敎官生徒之額不減他道登科第者比比有之人皆觀感漸拋馳馬試劍咸願叩篋橫經然或學舍未備且無板刻經書學者患之伏望依各司營造例募僧構學舍啓聞賞職又募僧刊行經書姑將道內二三年濟用監納神稅布及犯罪人沒官財產收贖錢布換紙以印分于各官下禮曹禮曹啓請依所啓但印書紙則以道內公儲布物量宜支給上曰可給一年貢納神稅布”.

29) 「朝鮮王朝實錄」太祖 3年 3月 27日 丙寅(條). “都評議使司上言濟州未嘗置學校其子弟不入仕於國故不識字不知法制各所千戶率皆愚肆作弊乞自今置敎授官土官子弟十歲以上皆令入學養成其材許赴國試又以赴京侍衛從仕者許爲千戶百戶以給筭付上從之”

備考, 疑禮問解 등의 禮類, 詩傳大文과 書傳大文 등의 詩類와 書類,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부터 필수교과목으로 중시되어 통치사상과 윤리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孝에 대해 기술한 孝經, 초학자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한자를 韻에 따라 주석한 韻書인 三韻通考와 한자를 쉽게 배우기 위해 만든 敎本인 類合 및 千字文, 童蒙先習과 童子習 등의 小學類 등 주로 13경 중심의 經部 서적의 冊板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 향교, 서원, 서당 등 모든 유학 교육기관에서 필수교과목으로 다루어진 子部 儒家類의 小學(諺解)과 栗谷李珣(1536~1584)가 初學者들의 교육을 위해 만든 擊蒙要訣 과 14세기 중엽元의 逸庵王이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저술한 敎化書인 正俗 등이 있다.

그리고 지방 자제들의 歷史 교육을 위해서도 史部 서적의 冊板 을 간인하였는데, 중국의 春秋戰國時代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기술한 十九史略과 태종 4년(1404) 明의 朱逢吉이 지은 牧民官 지침서인 牧民心鑑 등의 冊板 이 소장되어 있었고, 1653년에는 제주목사인 李元鎮에 의해 제주도의 종합 지리서인 耽羅志가 간인되었다.

한편 유학자들의 학문 활동의 결과물인 시문집도 간인하였는데, 唐나라의 名詩를 모아 놓은 唐詩絕句와 우리나라의 名詩를 모아 비평을 가한 續靑丘風雅抄, 그리고 고려말의 문신인 圃隱 鄭夢周(1337~1392)의 시문집인 圃隱集과 조선 전기의 문신인 冲庵 金淨(1486~1521)의 문집인 冲庵集, 조선 중기의 학자인 金世濂(1593~1646)의 시문집인 東溟集이 있고, 소설류는 明의 瞿佑(1341~1427)가 古今의 怪談奇聞을 엮어 만든 단편소설집 剪燈新話가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冊板의 소장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는 비록 중앙 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선조의 건국이념인 崇儒右文政策을 실현하고, 지방 자제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鄉校, 書院, 書堂 등 官學과 私學의 교육기관을 設立하고, 이러한 교육기관의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經 중심의 經部 서적과 성리학자들의 유학교육 관련서들을 집중적으로 간인하였으며, 아울러 다양한 교육을 위해 역사서와 시문류 등의 서적도 간인하였음이 밝혀졌다.

4.2 醫書와 獸醫書 및 兵書의 간인

조선은 건국과 함께 醫療濟民의 정책으로 중앙 의료기관으로서 內藥房, 典醫監, 惠民局, 東西大悲院(東西活人院), 濟生院, 種藥色, 醫學 등을 두었고, 지방 의료기관으로는 醫院, 醫學教授官(醫學教諭), 醫學(醫學院), 醫學丞 등을 두었다.³⁰⁾ 그러므로 제주도에도 의료 정책으로 일환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두었는데, 李元鎭의 耽羅志 醫藥條에 따르면, 藥局은 濟州牧의 友蓮堂 남쪽에 있고, 監官은 2인이며, 1인은 審藥을 겸하였다. 그리고 醫生은 14인, 약초를 재배하거나 캐는 일을 담당하는 藥漢은 20명이며, 藥圃는 新果園 북쪽에 있다³¹⁾고 하였다. 따라서 醫療濟民에 필수적인 醫書가 존재하였는바, 李元鎭의 耽羅志에는 人命救濟와 牛馬의 관리에 필요한 冊板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人命救濟에 관련한 醫書는 救急方과 經驗方이 있는데, 救急方은 응급조치를 해야 할 위급환자의 병명과 그 치료법을 다룬 서적이며, 經驗方은 朴英(1471~1540)이 漢藥에 관한 單方을 주로하여 漢方의 經驗方을 모아 엮은 책으로서 救急方, 經驗方의 보급을 통하여 육지와는 다른 풍토병과 기후적으로 습하고 바람 많은 지역의 질병 예방에도 관심이 컸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牛馬에 관련된 獸醫書는 馬醫方과 牛醫方을 합친 新編集成馬醫方이 있는데, 제주도가 牛馬 사육에 지리적, 환경적으로 육지부에 비해 절대 유리한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목에는 말을 방목 관리하기 위해 장오리오름에서부터 감은데갯내에 이르기까지 7개소의 馬場과 소를 모아서 기르는 牛屯, 양을 매어두는 羊棧, 돼지 우리인 豬圈, 염소를 놓아 먹이는 동산인 羔園이 있었고,³²⁾ 旌義縣에는 馬場 3개소와 羊棧이 있었으며,³³⁾ 그리고 大靜縣에는 馬場

30) 金斗鍾, 「韓國醫學史」(서울: 探求堂, 1966), 196.

31) 李元鎭 編; 김찬흠 등역, 「역주담라지」, 附錄(影印本) 醫藥條(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95-96. “藥局(在友蓮堂南監官二人一人審藥兼 醫生(廿四人) 藥漢 ….”

32) 李元鎭 編; 김찬흠 등역, 「역주담라지」, 附錄(影印本) 牧養條(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94-95. “馬場(自長兀岳至感恩德川俱有牧場凡七所 ….”

33) 李元鎭 編; 김찬흠 등역, 「역주담라지」, 附錄(影印本) 牧養條(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139. “馬場(三場十七字馬時數二千三百八十四匹)羊棧(在司倉中).”

1개소와 羊棧이 있었는데³⁴⁾ 三邑의 11개소 馬場에 총 10,185필의 말들을 수용하고 있어 이들 우마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兵書인 將鑑博議나 兵學指南은 군사 교육에 필요한 지침이다. 將鑑博議는 戰國시대의 孫武에서 五代의 郭崇韜에 이르는 94명의 中國歷代名將의 인품과 행적, 그들에 대한 후인의 평가를 모아 편찬한 것으로 조선조 무과 복시의 한 과목으로서, 제주목에서 武科에 응시하려는 지방민들에게는 필요한 자료이다. 兵學指南은 중국 明나라의 名將 戚繼光이 지은 紀效新書 18편 가운데 軍事의 조련, 부대배치, 진법, 행군, 호령 등 操鍊法을 간추려 엮은 책으로 조선후기의 군사교육의 핵심교재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육지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왜구들의 끊임없는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군사교련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耽羅志에 수록된 醫書와 獸醫書, 그리고 兵書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冊板들은 모두 제주도가 육지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목민관의 自救政策의 일환으로 판각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5. 結 論

지금까지 李元鎮의 耽羅志와 李益泰의 知瀛錄을 중심으로 편찬과정을 살펴보고, 17세기 제주에서는 어떤 책판이 존재하였으며, 어떤 주제별 특징이 있는가를 분석하여, 17세기 제주목의 출판문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耽羅志는 李元鎮이 東國輿地勝覽과 金淨의 濟州風土錄을 참고하여 재임 기간동안 자료를 정리해서 1653년 冊板을 판각하였으며, 19세기까지도 耽羅志의 일부 冊板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冊板의 유무를 전혀

34) 李元鎮 編; 김찬흠 등역, 「역주담라지」, 附錄(影印本) 牧養條(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158. “馬場 一場三字馬時數一千五百五十二四通三邑十一場五十八字馬時數共一萬一百八十五匹羊棧(在司倉中).”

알 수 없는 상태이다. 知瀛錄은 李益泰가 冲庵의 風土記, 金尙憲의 南槎錄, 林悌의 南溟小乘, 李元鎭의 耽羅志를 살펴보면서 재임기간 동안 기록하여 놓은 일기에 騰錄을 침삭하고 자신의 의견을 붙여 1696년에 완성한 것이다.

둘째, 耽羅志와 知瀛錄에 수록된 책판 및 서판을 분석한 결과, 1653년에 제주목은 冊板 34종(家禮, 擊蒙要訣, 經驗方, 救急方, 論語, 唐詩絕句, 大學, 大學諺解, 東溟集, 童蒙先習, 童子習, 馬牛方, 孟子, 牧民心鑑, 兵學指南, 三韻通考, 書傳大文, 小學, 小學諺解, 續青丘風雅抄, 詩傳大文, 十九史略, 玉壺冰, 類合, 將鑑博議, 剪燈新話, 正俗, 中庸, 中庸諺解, 千字, 冲庵集, 耽羅志, 圃隱集, 孝經), 書板 7종(藤王閣序, 浣花流水, 赤壁賦, 聽蟬書, 草千字, 春種, 退溪書) 등 41종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1696년에는 9종의 책판(論語諺解, 大學諺解, 孟子諺解, 史略, 小學, 諺解喪禮備要, 疑禮問解, 剪燈新話, 中庸諺解)과 書板 1종(宣廟御筆인 大字草書 八帖) 등 10종을 소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1600년대 제주목은 총 51종의 冊板과 書板을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이들 51종의 주제별 특성을 밝혀보기 위하여 四分法으로 분류해 본 결과 經部 21종, 史部 4종, 子部 18종, 集部 8종으로 經部 書籍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이와 같은 책판의 주제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는 비록 중앙 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선조의 건국이념인 崇儒右文政策을 실현하고, 지방 자체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13經 중심의 經部 서적과 성리학자들의 유학교육 관련서들을 집중적으로 간인하였으며, 아울러 다양한 교육을 위해 역사서와 시문류 등의 서적도 간인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밖에도 육지와는 다른 풍토병과 기후적으로 습하고 바람 많은 지역의 질병을 예방하고, 牛馬 사육에 지리적, 환경적으로 육지부에 비해 절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 牛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醫書와 獸醫書를 간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왜구들의 끊임없는 침입을 방어하고, 체계적인 군사교련을 위해 병서를 간인하는 등 17세기 제주도의 지역적인 출판문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66.
- 金成俊. “牧民心鑑과 居官要覽의 比較研究.” 『東方學志』 제62호(1989. 6). 1-36.
-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第8輯(2001. 11), 219-251.
- 藤田亮策. “紙反古.” 『書物同好會會報』 第2號(昭和十三年). 35-37.
- 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9輯-충청북도·제주도. 서울: 畝成文化社, 1996.
- 朴星錫(朝鮮) 編. 「嶺海唱酬錄」.
- 徐有矩·李鍾萬 篇. 「鏤板考」. 影印本. 서울: 대동출판사, 1941.
- 魚叔權(朝鮮) 編. 「攷事撮要」. 影印本. 부산: 민족문화, 1995.
- 李盛雨. 「韓國食經大全」. 서울: 鄉文社, 1981.
- 李源祚. 「耽羅志草本」. 影印本.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 李元鎮 跋; 김찬흠 等역. 「역주탐라지」.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 李益泰 著; 金益洙 譯. 「知瀛錄」. 제주: 제주문화원, 1997.
- 李增. 「南槎日錄」.
- 朝鮮古蹟研究會編. “松廣寺.”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稿本』(? , 1938), 130.
- 「朝鮮王朝實錄」.
-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2004.
- 韓國學文獻研究所編.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к с і